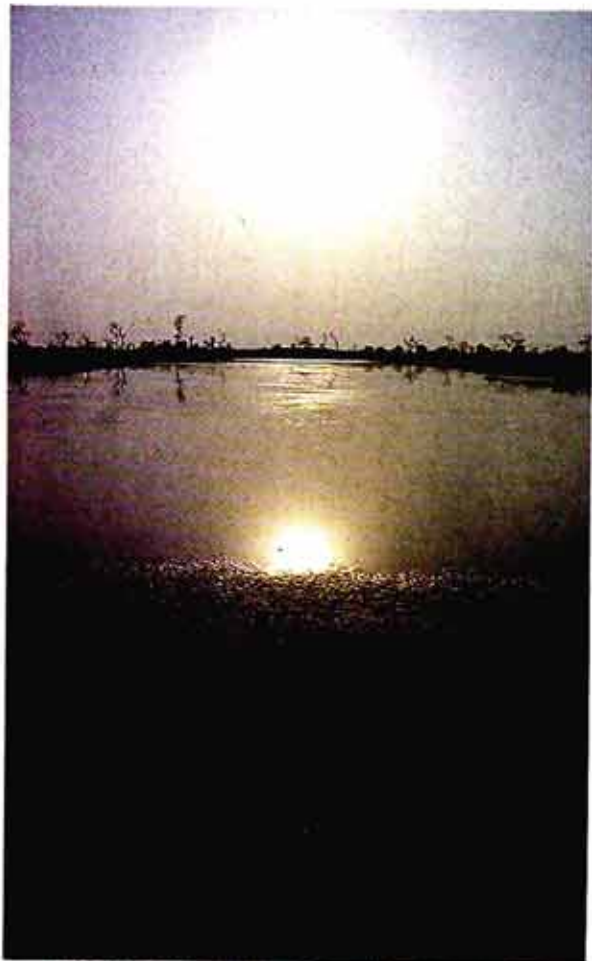




출가탑에 서니 환희심 절로



◇황한 연못과 갈라진 땅이 세가족의 생명을 말하듯 긴 세월을 지키고 있는 탈보사그리 연못



◇보리수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정반왕 탑과 마야부인 탑.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룸비니에서 카필라성까지

본지 고영배 사진기자 '부처님의 고향 가다' ①

룸비니에서 카필라성으로 가는 길은 기쁨진 농토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2천5백년전 해산을 앞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야부인이 룸비니로 향했던 바로 그 길이다.

카필라성으로 가는 도중 부처님이 성도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부왕인 정반왕과 석가족을 만난 쿠단을 보았다. 그곳은 3개의 탑이 있고, 탑들중 부처님과 정반왕의 만남을 기리는 탑은 아름다운 무늬가 인상적이었다. 쿠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고티하와에 둘러 현재 한길 제1보인 구류순불 탄생기념 아소카 석주를 참배하고 네팔 카필라성으로 향했다. 카필라성은 두 개의 실이 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간와리아 유적을 성터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곳은 석가족의 멸망 후의 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룸비니에서 30km 떨어진 킬라우라코트의 카필라성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몹시 무더운 날씨였지만 성스러운 곳을 찾아 왔다는 흥분이 더위를 식혀 주었다. 카필라성의 주변 마을인 킬라우라코트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마을길로 따라 들어 서니 성의 서문이 발굴되어 있다. 성은 남북으로 500m, 동서 450m에 이르는 유적이 발굴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본궁터로 추정되는 곳과 동문, 서문이 발굴되어 있었다. 남문과 북문터는 발굴 후 다시 덮여 왔다. 서문 안으로 들어가 서니 우거진 숲의 넓은 황궁터가 펼쳐졌고, 동쪽으로 발길을 옮겨 황궁터로 추정되는 유적지로 갔다. 황궁터에서는 SA-KA-NA-SYA라 표기된 테라코트 인장이 출토됐다고 한다. 동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싯달타 태지의 출가를 기리는 작은 탑이 언덕처럼 솟아 있었다. 법신스님은 '출가탑'이라고 설명했다.

싯달타 태지는 동문밖의 논에서 새에게 쪼아 먹히는 벌레와, 남문에서 병든 노인,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보고 출가의 결심을 했고, 동문의 담을 넘어 출가를 하셨다. 모자람것이 없던 왕자가 출가 사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동문에 들어서 출가탑을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 생로병사의 고통 뛰어 넘고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성문을 넘어오리라.

출가의 숭고한 정신을 놓아 두고 북쪽으로 삼여분을 걸어 정반왕의 탑과 마야부인의 탑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 5~6명 정도가 보리수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정반왕의 탑 가운데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내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듯 그들은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정반왕의 탑은 지름이 15m 정도 되고 높이는 3m 정도가 된다. 마야부인 탑은 정반왕 탑보다 작은 지름이 약7m에 지표면에 있었다. 카필라성에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 사그리하와로 향했다. 이곳은 석가족이 불살당한 장소로 '립부사그리'라는 연못이 있다. 주변은 석가족의 멸망을 말하듯 앙상한 나무 및 그루터기 연못을 오랜세월 지키고 있었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서쪽의 붉은 황혼이 차 안을 물들였다. 자연에 순응하고 불교와 힌두교가 구분되지 않는 종교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살다. 길에서 떠나신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며 모든 여정을 곱씹었다.

협찬: 대한불교에수원(佛事) (0357)542-3296



▲ 싯달타 태지가 사문 유적 후 출가했던 동문터.



▶ 라울리가 출가전 사리불에게 불법을 공부하던 곳 건물은 근래에 세워졌다고 함



◇부처님 성도후 정반왕의 처음으로 만났던 것을 기리는 탑(쿠단 소재).

▼ 탑의 둘레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벽돌이 새겨져 있다.

서울에서 50분거리

저렴한
가격

전원주택, 주말농장,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실한
투자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삼가 우리 불자들에게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뜻하지 않은 IMF한파를 잘 이겨 내셨는지요? 저는 10년전 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 부지 안내와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靑山건설 대표 안 태진 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양평 지역에 투자성이 매우 높은 전원 주택지를 소개 해 올리고자 합니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평수 : 500평, 1,000평 분할매매
특징 : 동남향, 서울에서 50분 거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토목정비작업 해드림 주위 피쉬랜드 낙씨터 근접. 평당 15만원 분할매매가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3,040평 (주택채 허가됨) 지목 : 준농림+생산임지
특징 : 서울에서 50분 거리 정남향 앞에 맑은 저수지, 주위경관 수려함 평당 8만원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1,500평(전원주택 2가구 허가됨)
지목 : 준농림(임야+답)
특징 : 저수지 근접. 서울에서 50분거리(잠실) 금액 평당 12만원 투자성이 매우 양호함

부지1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산98번지
총 평 수 : 4980평 (준농림+생산임지) 500평,1000평 분할매매가능

부지2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1번지
총 평 수 : 3,040평(준농림+생산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금액 평당 8만원

부지3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49번지
총 평 수 : 3750평 2필지(준농림+생산임지)
용 도 : 과수원, 평, 사슴목장 농업용도 개방가능
4m진입로 확보 금액 평당 5만원